



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초등 6단계)

뜨인돌어린이 | 예영 글 / 수봉이 그림



표지 탐색하기

<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에서 '소송'의 정확한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쓰세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의 그림을 보고 각각의 동물들이 처한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 경주마 전력 질주	
㉡ 모피 농장의 까망이	
㉢ 유기견 킁킁이	
㉣ 북극곰 기적이	
㉤ 실험실 토끼 1369번	

4) 책 뒷표지의 그림에서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인간들에게 호소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



답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초등 6단계)

뜨인돌어린이 | 예영 글 / 수봉이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답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그 광고는 동물과 교감하지 못하는 분예겐 아무 의미 없는 기호로 보인답니다.
 · 킁킁이의 행방이 묘연하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 기적이는 엄마의 생소한 모습이 당황스러웠다.
 · “한 시간 뒤에 재들이랑 함께 안구 적출해서 검사할 거야.”
 · 그러므로 농장주는 원고가 낸 알로 얻은 모든 이익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동네에서 20년 가까이 살아 ㉠□□□□으로 불리는 불도그 할아버지를 만나 뵈었습니다.
 ·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희망연구센터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원숭이 님이지. 나는 너희와는 다른 특별 대접을 받고 있어. ㉡□□□□가 아니라 사람처럼 '원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 교감하다 : ()
- 묘연하다 : ()
- 생소하다 : ()
- 적출하다 : ()
- 배상하다 : ()

- ① 고집어내거나 속아 내다.
- ② 소식이나 행방 따위를 알 길이 없다.
- ③ 서로 접촉하여 따라 움직임을 느끼다.
- ④ 어떤 대상이 친숙하지 못하고 낮이 설다.
- ⑤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다.

2)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 ㉡에 각각 들어갈 말을 쓰세요.

- ㉠ () : 집단의 구성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을 이르는 말.
 힌트 ⇨ OO대감.
- ㉡ () : 일률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번호.



답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초등 6단계)

뜨인돌어린이 | 예영 글 / 수봉이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답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① ()도 모르는 믹스견(퐁개)에 덩치까지 큰 나를 입양할 주인은 안 나타날 거라는 걸.
- ② “() 적자로 문 닫을 뻔한 동물원을 살렸으니 기적이 네가 복덩이다, 복덩이!”
- ③ 그러면 사장님이 우리를 원래 있던 배터리 케이지로 옮기는데, 그때부터 다시 하루에 한 개씩 알을 낳으며 4~5개월쯤 살다가 ()으로 끌려가요.
- ④ 정확히 말하면 신경이나 혈관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을 지지는 거죠.
- ⑤ 이름이 무슨 () 같아 이상하다고? 내 직업을 알면 이해될 거다.

(나) ㉠'원고'는 재판을 청구한 이로서 이 재판에서는 지난 2월 8일 농장을 탈출한 천 마리의 산란닭이 되겠죠. 오늘은 그중 한 마리의 산란닭이 원고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소송당한 이로서 행복양계농장의 농장주 이달재 씨입니다.

1) 다음 뜻을 참고하여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혈통 : 같은 핏줄의 계통.
- 도계장 : 고기를 얻기 위하여 닭을 잡아 죽이는 곳.
- 만성 : 버릇이 되다시피 하여 쉽게 고쳐지지 아니하는 상태나 성질.
- 사자성어 : 한자 네 자로 이루어진 성어. 교훈이나 유래를 담고 있다.
- 성장점 : 식물의 줄기나 뿌리 끝에 있으며 성장(나서 자라는 과정)을 현저하게 하고 있는 부분.

2) (나)의 밑줄 친 ㉠, ㉡에 대하여 그 정확한 뜻을 각각 사전에서 찾아 쓰고, ㉠, ㉡이 각각 가리키는 것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사람을 쓰세요.

⇒ ㉠ :

㉡ :



답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초등 6단계)

뜨인돌어린이 | 예영 글 / 수봉이 그림



강아지 탐정이 전하는 콩콩이의 안부

<답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제목 : 콩콩이의 마지막 이름

오늘이 콩콩이가 동물보호소에 버려진 지 열하루째 되는 날이었다는군요. 심장병에 걸린 콩콩이는 지난 열흘 동안 끝내 새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글쎄요, 저는 콩콩이가 주인을 만나 입양되는 게 나왔을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안락사실로 향하는 콩콩이의 표정이 매우 편안해 보였다는 걸 보면 콩콩이는 새로운 주인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닐까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는데, 보호소 직원이 비어 있는 철창의 풋말을 떼어 내고 밖을 뒀더군요. 앞으로 이 철창은 다시 열흘 동안 287번이란 이름을 부여 받은 어느 강아지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되겠지요.

(나) 제목 : 결국.....

결국, 그렇게 됐군요. 믿고 싶지 않지만 믿어야 하는 현실인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모두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를 사 달라고만 안 했더라면......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저 귀여운 강아지를 갖고 싶은 마음에 욕심냈던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차마 미안하다는 말도 못 하겠어요.

1) (가)에 나타난 ‘콩콩이’의 마지막 모습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 동물보호소 : 열흘 동안 _____ _____ _____	➔	· 콩콩이 : 심장병에 걸려 버려져서 ____ _____ _____
---	---	---

2) (나)에서 ‘나’(영탁)가 ‘콩콩이’에게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답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초등 6단계)

뜨인돌어린이 | 예영 글 / 수봉이 그림



북극곰 기적이의 출생의 비밀

<답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엄마는 기적이가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있던 얘기를 꺼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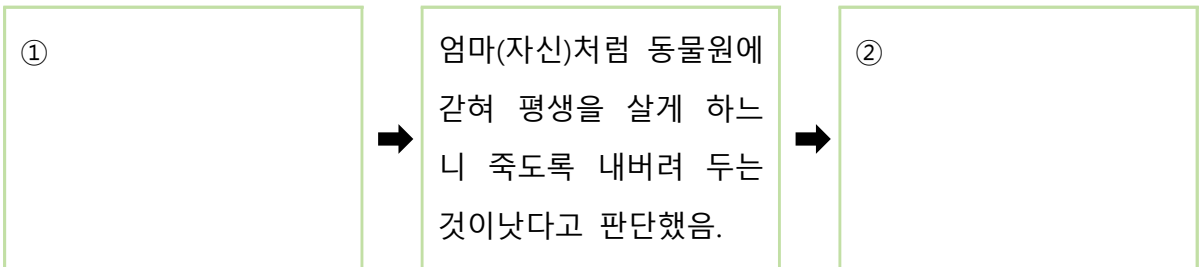
“그래서 널 낳자마자 버렸던 거야.” /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북극곰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안 좋은 환경에서 널 낳아 키울 수가 없었어. 엄마처럼 동물원에 갇혀 평생을 살게 하느니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거든. 너를 북극곰이 아닌 북극곰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단다.” /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기적이는 그런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나) 그런데 늘 아무렇지 않았던 이 익숙한 것들이 답답하게 느껴진다. 무언가 크고 묵직한 것이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숨 쉬기가 힘들다.

기적이는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는 여전히 방사장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방사장 고틀머리 벽에 그려진 얼음 굴 앞으로 갈 때마다 엄마는 크르렁 소리를 내며 고개를 휘젓는다. 엄마는 혹시 얼음 굴 그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까? 어쩌면 엄마를 따라다니면 다시 한 번 엄마가 살았던 북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북극곰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1) (가)에 나타난 ‘기적이 엄마’의 말을 정리해 봅시다. 아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2) (나)에서 ‘기적이’가 익숙한 것들에 답답하게 느꼈던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답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초등 6단계)

뜨인돌어린이 | 예영 글 / 수봉이 그림



토끼 1369번의 마지막 하루

<답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13시간 전 | 3월 17일 저녁 8시

“지금 너희들은 화장품의 독성을 알아보는 실험에 이용되고 있어. 화장품이 뭐냐고? 사람들이 예뻐지려고 얼굴에 바르는 거야. 그 화장품 속에는 화학성분이 들어가는데, 그 걸 얼마만큼 넣으면 사람한테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해. 그래서 너희 토끼 눈에 넣고 측정하는 거지. 아마 화학물질의 양을 조금씩 늘려 가며 눈에 넣었을걸?”

그랬다. 눈에 안약을 넣을 때마다 양이 더 많아졌고, 그만큼 더 시리고 아팠다.

(나) 0시간 | 3월 18일 오전 9시

누군가 말했다. “이번 실험 어때?” / “눈이 먼 토끼들이 10%, 화상 입은 토끼가 20%예요. 화장품 속에 든 화학성분이 너무 독한 것 같아요.”

“음, 그럼 성분을 낮춰야겠군. 실험을 안 하고 그대로 판매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애들은 어떻게 하죠?” / “전부 안락사시키고 그중에 눈이 먼 토끼들은 안구를 적출해서 검사하도록!” / 안락사라는 말이 반가웠다. 지금 나와 친구들이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기 때문이다.

1) 윗글에서 ‘토끼들’은 화장품의 독성을 알아보는 시험에 이용되다가 안락사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실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2) (나)에서 ‘나’(토끼 1369번)가 자신들을 안락사시키라는 말이 반가웠던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초등 6단계)

뜨인돌어린이 | 예영 글 / 수봉이 그림



닭답게 살 권리 청구 소송 사건

<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원고 측 대리인 : 네, 저희는 원고가 농장주로부터 '닭답게 살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배터리 케이지는 좁은 면적에서 최대한 많은 닭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좌우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이 비좁은 사육틀은 최소한의 본능적인 욕구마저도 제한하고 오직 최고의 생산성을 위해 만들어진 사육시설입니다. 만약 닭의 본능이나 습성을 파악했다면 이런 사육시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또한 닭을 생명체로 여겼다면 사료 낭비를 방지하고자 부리를 자르고, 산란율을 높이기 위해 열흘 이상 굶기며 털갈이를 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같은 일이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닭을 오직 알 낳는 기계로만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나) 피고 측 대리인 : 양계농장에서 키우는 닭들에게 야생의 닭들처럼 본성을 유지하며 살게 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살아가는 환경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계농장의 닭들은 어디까지나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키워지는 것이므로 닭들의 권리를 위해 농장주가 손해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농장주가 행하고 있는 닭의 사육 방식과 시설은 보편적인 것이며 법적으로도 위반 사실이 없는 정당한 것입니다.

1) (가)~(나)에 나타난 최종 변론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세요.

<p>① 원고 측 대리인 : 원고가 농장주로부터 _____</p> <p>_____</p> <p>_____</p>	<p>↔</p>	<p>② 피고 측 대리인 : 양계농장의 닭들은 _____</p> <p>_____</p> <p>_____</p>
--	----------	---

2) (가)에서 '닭들'이 살고 있는 배터리 케이지와 사육시설에 대해 파악하여 쓰세요.

⇒



답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초등 6단계)

뜨인돌어린이 | 예영 글 / 수봉이 그림



경주마 전력질주의 첫째 주 일요일

<답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다. 우리 과연 무엇 때문에 이토록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경주를 하는 것일까? 우승의 짜릿한 순간 때문에? 아니면 거액의 상금을 받으려고? 아니면 우리를 보며 환호하는 경마 팬들을 위한 서비스로?

아니, 그건 모두 사람들의 몫이다. 우리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위해 관계자들이 해 주는 모든 서비스 역시 그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다.

(나) 훈련, 경주, 회복, 다시 훈련, 경주, 회복, 또다시 훈련, 경주, 회복.....

이렇게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경주마 생활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 아니 언제까지 해낼 수 있을까? 무사히 큰 부상 없이 은퇴해서 승용마나 마차 끄는 말로 전환되어 제 2의 마생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경주 도중 치명적인 사고를 입고 안락사당하거나, 도축업자에게 말고기로 팔려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 경주마가 된 것이 내 선택이 아니었듯이 나의 미래 역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의무만 가득하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 경주마의 삶을 나는 내일도 계속 살아 나갈 것이다.

다음 중 (가), (나)에 나타난 ‘나’(전력질주)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인간들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경주마로서의 삶에 회의감이 든다.
- ② 경주마로 사는 생활은 선택권 없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수동적인 삶이다.
- ③ 경주마로 계속 사느니 경주 도중 치명적인 사고를 입어 하루라도 빨리 안락사당하는 것이 낫다.
- ④ 무사히 경주마 생활을 마치고 승용마나 마차를 끄는 일을 하면서 남은 생을 살 수 있다면 다행이다.
- ⑤ 의무만 가득하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 경주마의 삶이라도 우승의 짜릿한 순간을 맛볼 수 있기에 의미가 있다.



답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초등 6단계)

뜨인돌어린이 | 예영 글 / 수봉이 그림



밍크 농장에서 보내 온 편지

<답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사람들은 우리 털로 옷을 만들어 입어. 우리 털은 가볍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우니까. 특히 10월 말부터 1월에 나는 털은 모질이 부드럽고 풍성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늦가을만 되면 왜 그렇게 많은 밍크들이 잡혀가는지. 그러니까 이 농장은 사람의 옷에 쓰일 털을 위해 밍크를 키우거나 잡아 오는 농장이었던 거예요.

(나) 까망이가 어떻게 떠났는지는 적지 않을게요. 그게 까망이의 마지막 부탁이었거든요. 그래도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까망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씩씩했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가족과 함께 자연에서 살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오직 털을 얻기 위해 사육되는 너희들은…….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부디 앞으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 녀석은 기어이 우리를 울리고 떠났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그 까만 털가족을 남기고서요. 이제 녀석의 털가족은 누군가가 자랑스레 입는 코트 한 자락이나 목도리의 한 부분이 되겠지요.

1) 윗글에서 ‘밍크들’은 사람의 옷에 쓰일 털을 얻기 위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피 산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

2) (나)에서 ‘까망이’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씩씩할 수 있었던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닭답게 살 권리 소송 사건 (초등 6단계)

뜨인돌어린이 | 예영 글 / 수봉이 그림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p>1)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2) (예시답안) 원고석에 서서 화난 닭이 왼쪽 날개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말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있다. 아래쪽에는 판사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서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다.</p> <p>3) ㉠ 다쳐도 경주를 해야 함, ㉡ 모피 코트 때문에 죽어야 함, ㉢ 버려져서 마음의 상처가 큼, ㉣ 고향이 너무 그리움, ㉤ 죽음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겪음</p> <p>4)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동물들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p>
2쪽	<p>1) 교감하다 : ③, 묘연하다 : ②, 생소하다 : ④, 적출하다 : ①, 배상하다 : ⑤</p> <p>2) ㉠ : 터줏대감, ㉡ : 일련번호</p>
3쪽	<p>1) ① 혈통 ② 만성 ③ 도계장 ④ 생장점 ⑤ 사자성어</p> <p>2) • ㉠원고 : 재판을 청구한 이, 2월 8일 농장을 탈출한 천 마리의 산란닭 • ㉡피고 : 소송당한 이, 행복양계농장의 농장주 이달재 씨</p>
4쪽	<p>1) • 동물보호소 : 새로운 주인을 만나 입양되지 못한 유기견은 안락사시킴. • 콩콩이 : 287번이란 이름으로 살다가 열하루째 되는 날에 안락사당했음.</p> <p>2) '나'가 콩콩이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저 귀여운 강아지를 갖고 싶은 마음에 욕심냈던 것이 잘못이다.</p>
5쪽	<p>1) ① 북극곰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안 좋은 환경에서 기적이를 낳아 키울 수가 없었음. ② 기적이를 북극곰이 아닌 북극곰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낳자마자 버렸던 것임.</p> <p>2) 진짜 북극곰으로 살지 못하고 방사장 안에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서</p>
6쪽	<p>1) (예시답안) 화장품의 독성을 알아보기 위해 토끼들을 실험에 이용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행동이다. 이러한 동물실험은 중지해야 하며 대체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p> <p>2) '나'와 친구들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뿐이기 때문에</p>
7쪽	<p>1) ① 닭답게 살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았고, 사육시설과 털갈이를 시킨 것을 보면 닭을 오직 알 낳는 기계로만 여겼음. ②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키워지는 것이므로 닭들의 권리를 위해 농장주가 손해를 입을 수는 없음.</p> <p>2) 배터리 케이지는 좁은 면적에서 최대한 많은 닭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고, 최소한의 본능적인 욕구마저도 제한하고 오직 최고의 생산성을 위해 만들어진 사육시설이다.</p>
8쪽	③, ⑤
9쪽	<p>1) (예시답안) 사람의 옷에 쓰일 털을 얻기 위해 밍크를 키우거나 잡는 것은 너무 잔인한 행동이다. 모피 옷을 입지 말아야 하고, 밍크 털을 다른 섬유로 대체해야 한다.</p> <p>2) 까망이에게는 가족과 함께 자연에서 살던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이 있어서</p>